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7월

(참의원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불안한 회복기조	2
2. 무역수지 2개월 만에 흑자 반전	6
3. 엔고·저주가·마이너스 금리 확대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참의원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 무역적자 확대	15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2. 주요 경제 일정	21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2.0	110.5	-
GDP증가율(연율,%)	△0.0	0.5	△1.7	1.7	△1.8	1.9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16.3	17.9	17.2	20.1(p)	-	-	-
	공공투자	24.5	23.4	4.1	5.0	6.1	6.5(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4.8	17.6	21.8	19.6	-	3.7	3.9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2	0.0	0.1	△0.3	-	0.3	0.1
상승률(%)	전년동기비	2.6	0.5	0.1	△0.1	0.0	△0.1	-	△0.3	△0.4
실업률(%)		3.6	-3.4	3.3	3.4	3.2	3.2	-	3.2	3.2
수출(조엔)		73.1	75.6	18.8	19.0	18.8	17.5	17.0	5.9	5.1
수입(조엔)		85.9	78.5	19.1	20.0	19.0	17.2	15.5	5.1	5.1
무역수지(조엔)		△12.8	△2.9	△0.3	△1.0	△0.2	△0.3	1.5	0.8	△0.04
경상수지(조엔)		3.9	16.4	3.8	5.0	3.6	5.9	-	1.9	1.8
환율	달러	105.8	121.1	121.4	122.3	121.5	115.3	108.1	109.9	109.2
	원화(100엔)	996	935	905	957	953	1,043	1,076	1,044	1,075
금리(10년물,%)		0.55	0.36	0.40	0.40	0.31	0.051	-0.121	-0.092	-0.107
주가(닛케이)		15,460	19,203	20,058	19,474	19,035	16,843	16,393	16,544	16,613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불안한 회복기조

○ '16.5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0.5로 전월비 1.5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 '16.5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6,928억 엔 흑자

○ '16.6월 수출은 6조 255억 엔, 수입은 5조 3,326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6.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5.5 엔으로 전월비 3.4%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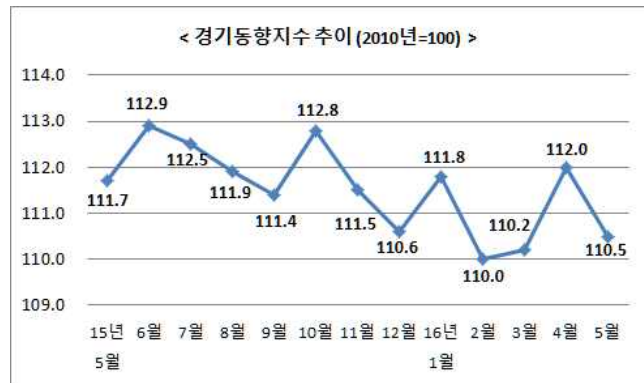
* '16.6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108엔으로 전월비 3.1%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불안한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는 일시적인 조정국면에 있으나 회복기조에는 변함이 없음
 - 수출과 생산은 보합권에서 추이하고 있는 외에 개인소비는 약세를 계속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5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0.5로 3개월 만에 전월보다 1.5p 하락



자료 : 내각부

- 전월과 비교 가능한 지표 중 6개의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엔고로 인한 수출의 채산성 악화가 생산에 악영향을 마침
- 일본 내각부는 경기기조에 관하여 1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판단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엔고의 부담에도 공공투자의 진척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6월의 경기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마인드가 악화되어 설비투자자와 소비, 신규 고용 등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음
 - 경기의 기본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 내지는 불투명성 증대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한 상황
- 일본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급격한 엔고임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금년 1월 1.7%로 전망했던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수정

<GDP>

- 일본 내각부가 6월 8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GDP 성장률 개정치(2차 속보치, 실질)는 전기비 0.5%, 연율 1.9%로 1차 속보치(전기비 0.4%, 연율 1.7%)보다 약간 상향조정
- 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1차 속보치 0.2에서 0.3으로 증가한 반면, 외수의 기여도 0.2로 1차 속보치와 같음
 - 1차 속보치에 비하면, 민간설비투자가 크게 상향조정됨
 - 개인소비도 0.5% 증가에서 0.6%로 증가폭이 확대. 휴대전화와 자동차 판매가 호조
 - 주택투자도 0.8% 감소에서 0.7% 감소로 소폭 상향조정
 - 공공공사는 0.3% 증가에서 0.7% 감소로 반전
- 수출은 전기비 0.6% 증가함으로써 기여도를 높였으며, 특히 방일외국인들의 소비가 호조를 보여 GDP를 전기비 0.1%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음
- 한편, 일본정부는 금년 1월 1.7%로 전망했던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수정했음
 -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재연기함에 따라 소비의 가수요 등을 예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 또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이라는 점도 하향수정의 요인임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전기비	△0.0	0.6	△0.7	0.5	1.3	△0.4	0.4	△0.4	0.5
전기비연율			△2.7	2.1	5.2	△1.7	1.7	△1.8	1.9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1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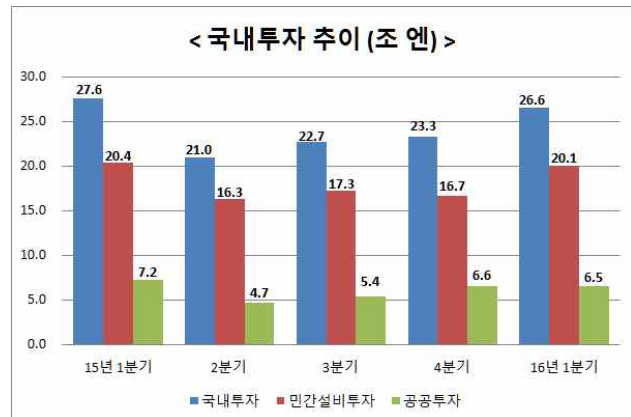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6.1분기 국내투자 GDP의 21.3%

- '16.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4.0% 증가한 26.6조 엔으로 GDP의 21.3%

□ (민간설비투자)

- '16.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0.6% 증가한 20.1조 엔, 국내 투자의 75.7%를 차지
- 그러나 실질기준으로는 2분기 만에 전기비 1.4% 감소, 금년 초 이후 엔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불투명감 등이 투자에 악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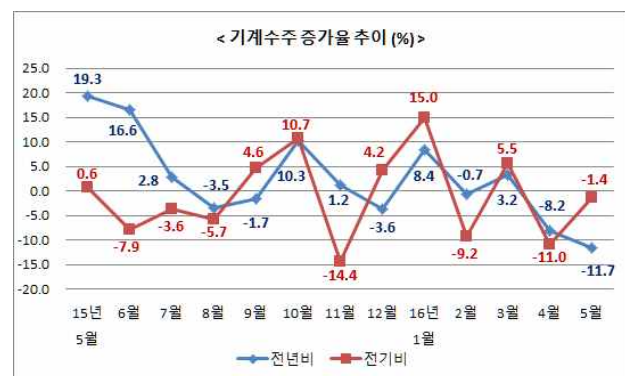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제조업에서는 6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5년 만에 감소 예상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5월 기계 수주는 엔고와 해외경제 감속 등으로 2개월 연속 전월비 1.4% 감소

□ (공공투자)

- '16.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6% 감소한 6.5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4.3%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완만한 감소경향
- 5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0.2% 감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그러나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최근 0.8조 엔의 구마모토지진 복구 예비비 편성은 공공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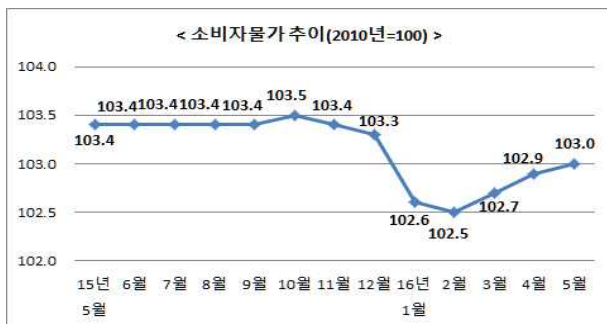
□ '16.5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 '16.5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0(2010년= 100)로 전월비 0.1%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4%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0.6% 상승
- 당분간 물가하락에 대한 유가하락의 영향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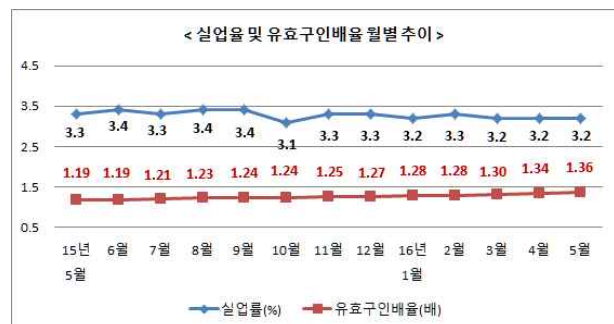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5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2%
 - 3%대 전반의 양호한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노동수급이 팽박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
 -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2만 명 늘고 고용자수는 3만 명이 늘은 가운데, 완전실업자 수는 1만 명이 증가한 212만 명
- 16.5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6배로 상승, 여전히 고용수요의 증가를 반영
 - 숙박·음식·도매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일손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유효구인배율을 끌어올리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2개월 만에 흑자 반전

□ (총 합) 수출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 ‘16.6월 무역수지는 6,928억 엔 흑자로 2개월 만에 흑자 반전
 - 수출의 급증이 흑자 반전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011억 엔에서 3,351억 엔으로 축소된 반면, 對 미국 무역 흑자는 전월의 3,456억 엔에서 6,184억 엔으로 확대
- 한편, 201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조 8,142억 엔 흑자로 5년 반기 만에 흑자로 전환
 -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감이 흑자에 크게 기여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의 2조 9,672억 엔에서 2조 5,888억 엔으로 축소된 반면, 對미국 흑자는 전년 동기의 3조 4,033억 엔에서 3조 4,120억 엔으로 확대

< 2016년 6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5월			2015.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1	-11.3	-13.6	6.0	-7.4	18.3	34.5	-8.7
수 입	5.1	-13.8	1.3	5.3	-18.8	3.9	32.7	-17.2
수 지	-0.04	-81.1	-95.0	0.7	-	-	1.8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6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6월 수출은 전월대비 18.3% 증가한 6조 255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16.3% 증가
-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원동기가 5대 수출 품목으로 포함된 가운데, 5대 수출품목 모두 수출이 증가
 - 자동차의 수출증가폭이 33.7%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의 수출도 모두 증가
 -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25.6%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5.2% 증가

○ 한편, 2016년 상반기 수출은 34조 5,18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7% 감소

- 엔고와 세계경제의 감속이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
- 품목별로는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27.5%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對ASEAN 수출 감소폭이 -13%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12.9% 감소

< 2016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7,444	-2.2	-18.5	9952	-7.5	33.7	54,484	-2.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51	-20.0	-13.3	2,958	-11.3	16.0	17,056	-11.6
3	자동차부품	2,464	-2.8	-19.5	2,864	-0.8	16.2	16,335	-4.6
4	철강	2,301	-24.1	5.0	2,323	-24.2	1.0	14,172	-27.5
5	원동기	1,672	-13.4	-18.2	2,004	-6.7	19.9	11,828	-10.4

자료 : 재무성

< 2016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9,699	-10.7	-19.2	12,180	-6.5	25.6	70,433	-6.5
2	중국	9,019	-14.9	-12.9	10,438	-10.0	15.7	58,907	-9.0
3	ASEAN	7,828	-10.5	-11.3	8,903	-8.4	13.7	51,015	-13.0
4	EU	5,778	-4.0	-17.8	6,627	-0.4	14.7	40,438	4.0
5	한국	3,791	-9.1	-8.0	3,989	-13.6	5.2	24,172	-12.9
6	대만	3,363	-9.2	1.5	3,702	-7.9	10.1	20,397	-8.3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6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6월 수입은 5조 3,326억 엔으로 전월비 3.9% 증가
 - 수입물량도 전월비 3.3% 증가
- 의류 및 동 부속품 대신에 통신기가 5대 수입품목에 포함된 가운데, 5대 수입품목 모두 수입이 증가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중국과 아세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한국이 호주를 제치고 일본의 5대 수입국으로 부상
- 한편, 2016년 상반기 수입은 32조 7,041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 감소
 - 유가하락이 수입급감의 주된 원인
 - 품목별로는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46.4%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모든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29.8%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1.1% 감소

< 2016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4,493	-30.6	27.2	4,640	-31.2	3.3	25,882	-38.2
2	통신기	1,743	-17.6	25.5	2,407	9.0	38.1	12,361	-8.3
3	의약품	1,931	-4.1	-12.6	2,379	1.2	23.2	13,819	7.6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1,902	-13.5	-2.4	2,075	-18.2	9.1	12,541	-16.1
5	액화천연가스	1,833	-41.9	-21.0	2,054	-43.9	12.1	16,716	-46.4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3,030	-9.7	-2.0	13,789	-12.4	5.8	84,740	-10.2
2	ASEAN	7,617	-10.9	-0.5	8,245	-17.0	8.2	50,539	-16.2
3	EU	6,514	-1.5	5.5	6,507	-6.6	-0.1	40,363	-0.2
4	미국	6,242	-8.5	6.6	5,996	-17.2	-4.0	36,313	-12.1
5	한국	2,190	-21.4	8.7	2,257	-19.3	3.1	13,270	-21.1
6	호주	2,286	-24.0	-9.4	2,226	-32.4	-2.6	15,495	-29.8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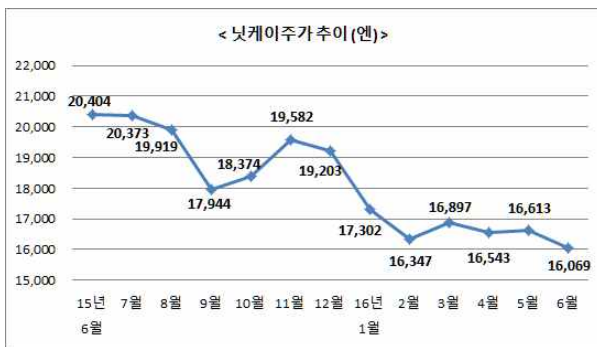
3. 엔고 · 저주가 · 마이너스 금리 확대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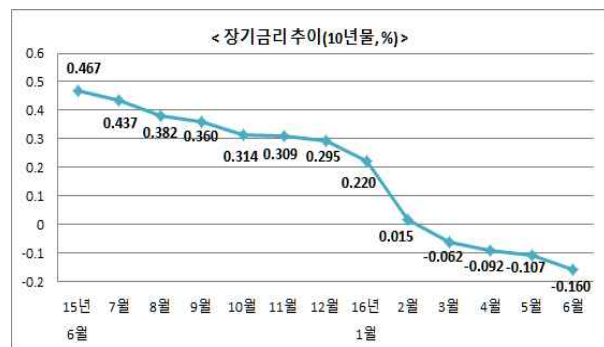
- '16.6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3.3% 하락한 16,069엔

□ (금 리)

- '16.6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월의 -0.107에서 -0.160%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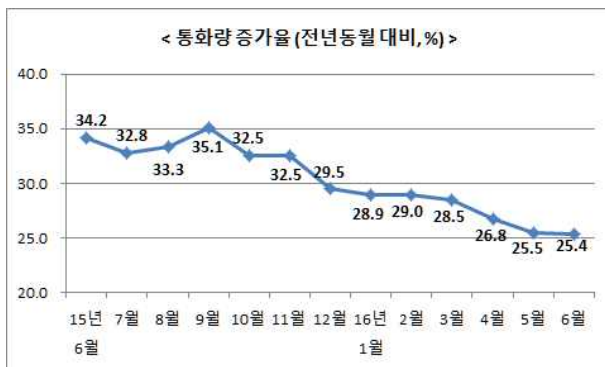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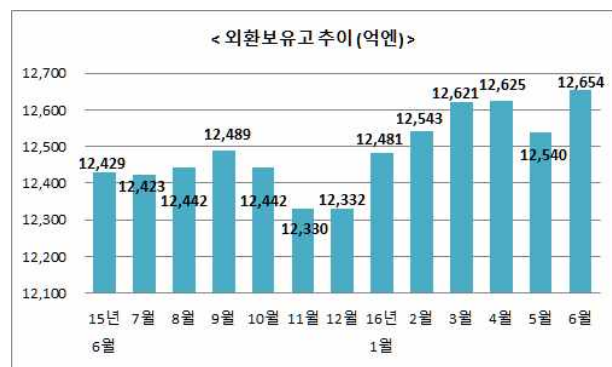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6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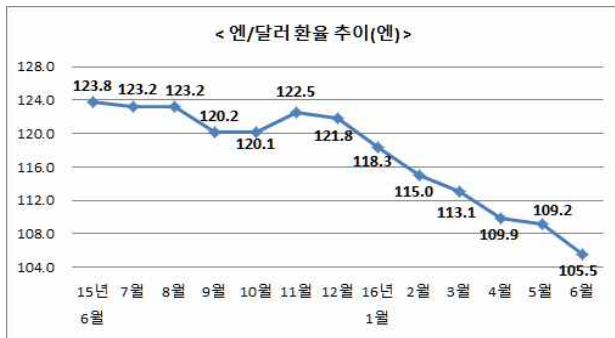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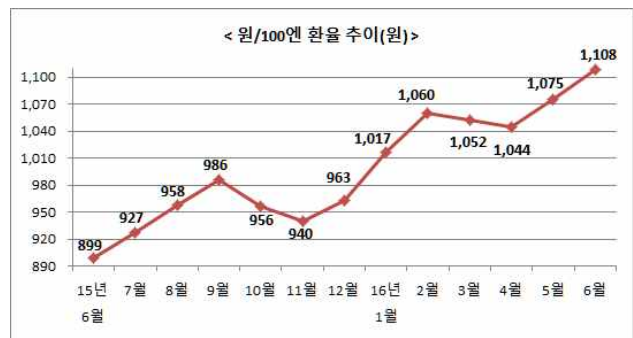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3.4% 하락한 105.5엔(엔고)
- ‘16.7월 들어서는 100엔대까지 엔고가 가속된 후 7월 22일 기준 105.9엔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후퇴,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 보류,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이 엔고환경을 조성
- ‘16.6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108원으로 전월의 1,075원에 비하여 3.1%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 (동 향)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과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호조로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16년 5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8,882억 엔으로 전월비 5.3%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3월	4월	5월	1-5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75,273	36,940	38,882	272,070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22.1	-51.0	5.3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36.8	-5.9	-25.7	10.5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對 유럽 직접투자는 2조 3,511억 엔으로 9.5% 증가
- 對 미국 직접투자는 7,120억 엔으로 전월비 33%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44억 엔으로 29.8%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1분기		4월		5월		1-5월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 세계	696,396	-11.8	196,248	-9.8	36,940	-51.0	38,882	5.3	233,188
아시아	141,593	19.0	22,851	-28.6	6,238	-20.3	5,874	-5.9	29,089
중 국	14,659	1.1	3,179	-16.8	977	-18.0	1,040	6.4	4,156
한 국	4,714	-20.6	721	-39.6	188	-29.6	244	29.8	909
북 미	237,283	-2.9	81,748	-8.0	6,226	-82.0	7,796	25.2	87,974
미 국	230,435	-2.9	80,800	-7.8	5,355	-84.4	7,120	33.0	86,155
중남미	22,758	49.4	3,574	-42.5	1,138	-46.7	697	-38.8	4,712
유 럽	269,749	-30.4	83,122	-2.2	21,467	-24.6	23,511	9.5	104,589
대양주	19,126	1.2	2,904	-8.9	995	-29.0	455	-54.3	3,899
중동	1,805	46.9	815	101.2	127	-61.6	107	-15.7	942
아프리카	6,843	7.3	1,225	-32.6	749	63.5	442	-41.0	1,974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연간으로 전년의 2배인 11조 엔에 달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
- 인구감소와 국내시장의 축소 하에서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참의원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 일본 집권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최우선의 정권운영에 임할 생각을 밝히면서 우선은 경제대책을 조기에 책정, 경기부양을 서두를 방침임
- 앞으로 중의원 해산이나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성공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임

□ 참의원 선거 압승의 경제·정책적 의미

- 파이낸셜뉴스(2016.7.12)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중·참의원 의석 모두 개헌파가 개헌 발의 정족수 2/3이상을 확보했음에도 개헌 논의를 미루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여당에 표를 던진 데 따른 행동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가 가장 중시한 점은 경기와 고용이었음. 요미우리신문도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성과 시비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전하고 있음
- 선거유세기간 아베총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에 중점을 두고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 호소했음
-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는 그동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내심과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

- 닛케이·파이낸셜뉴스(2016.7.12)에 의하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강화시킬 구체안을 7월 12일 발표
- 연금 납부기간 단축, 보육·간병 서비스 개선 등 내수 확대 방안이 주로 포함
- 7월 12일 일본의 주요 언론매체는 아베 총리가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경제재생 상에게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향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4년 만에 신규 국채추가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이는 아베노믹스를 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데 따른 것임
-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금리인하를 비롯한 금융완화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 이번 경제대책에서는 내수 및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우선 내각이 임시국회에 10조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 유력
- 구체적으로는 연금 납부기간을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해 연금 수령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고령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란 계산임
- 또 신신칸센 개통 단축, 농산물 수출 및 지역 관광시설 정비 지원, 보육·간호 서비스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침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섬
- 또 인공지능(AI)등의 성장전략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
-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회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이투데이, 2016.7.11)
- 아베총리는 참의원 선거전에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부양에만 나서면 재정건전화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노무라 증권은 경제대책을 예측해 반영해도 올해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이 0.8% 내년은 0.9%에 그쳐 아베정권의 목표인 2%성장률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전망

- 시장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3-6개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한국경제, 2016.7.22)
- 노무라 증권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는 아베정권이 앞으로 6개월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며 아베정권이 지금까지 내놓은 구조개편계획을 잘 실천하고 올 가을 이후 성장전략 2탄도 발표한다면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아베총리가 2012년 자민당 총재로 취임할 당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이루려던 경기 부양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음
- 그러나 이번 선거로 아베총리는 최대 10조엔 규모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또 일본은행이 추가금융완화를 통하여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이후 거세진 엔화강세를 저지할 청신호도 켜진 셈임

□ 과제

- 한편, 성장전략의 기둥인 TPP의 승인안과 관련법의 통과는 올가을 임시국회의 최대 테마로, TPP를 지렛대로 공격적인 농업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도 산업계의 관심은 높음
- 이와 관련하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제도나 외국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 성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를 포함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책 제시 등이 참의원 선거이후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한국관련 영향

- 일본 자민당은 대규모 금융완화, 과감한 재정투입 등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아베노믹스가 강화되는 경우 엔저 등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 2가지 점에서 악영향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음
 - 첫째는 대외적인 영향으로 엔고가 이어져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엔고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임
- 둘째는 아베노믹스의 강화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우리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확대

□ (총 합)

- '16.6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156백만 달러 증가한 1,745백만 달러
 - 대일 수출의 둔화와 대일수입의 증가반전이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 6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1%에서 4.7%로 하락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1%에서 11.5%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8%에서 7.6%로 하락
- 한편, 2016년 상반기 중 대일무역적자는 10,526백만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보다 8백만 달러 증가

< 2016년 6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42	-12.4	15.0	2,150	-3.6	5.3	11,508	-13.6
대일 수입	3,632	3.7	-4.7	3,894	-2.9	7.2	22,034	-7.6
무역 수지	-1,589	417	-448	-1,745	-36	156	-10,526	8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6월 대일 수출은 2,150백만 달러로 전월비 5.3% 증가
 - 이는 전월의 증가율 15%와, 6월의 총 수출 증가율 13.8%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5월	-12.4	15.0	-6.0	-3.1	-13.8	1.3
2016.6월	-3.6	5.3	-2.7	13.8	-18.8	3.9
2016.1-6월	-13.6	-	-9.9	-	-17.2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산업용전자제품이 순위 6위에서 2위로 올라선 반면, 광물성연료는 2위에서 3위로 밀려남
 - 대일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71.8%로 가장 큼
 - 대일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15.2%로 가장 큼
- 한편, 2016년 상반기 중 대일 수출은 11,50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3.6% 감소
 - 10대 대일수출 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와 기계요소공구·금형 등 2개 품목만이 대일 수출이 증가

< 2016년 6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042	-12.4	15.0	2,150	-3.6	5.3	11,508	-13.6
1	철강제품	258	6.2	18.9	241	-3.7	-6.6	1,430	-5.3
2	산업용전자제품	103	-66.3	24.1	177	-8.3	71.8	664	-54.4
3	광물성연료	180	-53.7	39.5	171	-41.1	-5.0	922	-50.3
4	전자부품	147	-21.4	3.5	165	-19.0	12.2	901	-22.8
5	정밀화학제품	128	8.0	26.7	137	-3.8	7.0	685	-4.3
6	수송기계	145	52.0	34.3	123	19.5	-15.2	718	19.2
7	석유화학제품	101	-15.5	-4.7	116	-23.2	14.9	577	-19.2
8	금속광물	99	0.8	19.3	113	38.5	14.1	516	-0.2
7	기계요소공구·금형	98	24.9	16.7	97	22.5	-1.0	549	16.3
10	농산물	82	6.6	10.8	84	-5.9	2.4	455	-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6월 대일수입은 3,894백만 달러로 전월비 7.2%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증가율 3.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5월	3.7	-4.7	-9.0	1.9
2016.6월	-2.9	7.2	-7.7	3.0
2016.1-6월	-7.6	-	-13.4	-

- 대일수입도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고 순위 변동만 있는 가운데, 전자 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정밀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감소
 - 대일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감소폭이 -14.4%로 가장 큼
 -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기계의 증가폭이 28.5%로 가장 큼
- 한편, 2016년 상반기 중 대일수입은 22,03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7.6% 감소
 - 10대 대일수입 품목 중에서는 정밀화학제품과 산업용전자제품 등 2개 품목만이 대일 수입이 증가

< 2016년 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6.5월			2016.6월			2016.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632	3.7	-4.7	3,894	-2.9	7.2	22,034	-7.6
1	철강제품	414	-5.4	0.5	482	-7.3	16.4	2,507	-19.0
2	전자부품	478	8.4	-13.9	409	-14.2	-14.4	2,916	-3.5
3	정밀화학제품	313	19.9	-10.8	359	13.5	14.7	2,000	3.7
4	석유화학제품	324	-29.3	-0.6	328	-21.6	1.2	1,890	-27.1
5	기초산업기계	229	-4.9	-13.6	266	-11.2	16.2	1,514	-3.5
5	산업용전자제품	266	45	-3.6	263	13.3	-1.1	1,510	14.8
6	정밀기계	257	65.2	23.6	256	32.8	-0.4	1,366	-8.6
8	수송기계	208	-1.5	6.1	215	-2.5	3.4	1,196	-5.3
9	플라스틱제품	190	2.2	-0.5	199	3.5	4.7	1,118	-6.1
10	산업기계	151	-4.8	-18.4	194	3.9	28.5	1,037	-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 향) '16.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증가로 반전

- '16.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531백만 달러로 전기비 229.8%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8.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전년동기비로는 22.4% 감소
 - 건수로는 전기비 34.4% 증가

- '16.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9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8.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4분기		2016.1분기		2016.2분기		2106.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82 (34.4)	531 (229.8)	143 (-15.4)*	692 (-28.9)*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760 (13.9)	6,279 (48.1)	1,427 (9.8)*	10,520 (18.6)*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기저귀용 부직포 생산 1위인 도레이가 한국 자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에 60억 엔(약 671억 7300만원)가량을 투자하여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
 - 신공장의 가동으로 동사의 생산능력은 10% 증가한 연간 17만 1천 톤
 - 신공장에서 생산한 부직포는 한국 내 종이기저귀 공장 외에 중국에 있는 일본투자 기업에도 공급(2016.6.17. 닛케이)
- (주)트라이텍스가 안산 반월공단 내에 트라이테크 코리아 공장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
 - (주)트라이텍스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부지역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기계 자동화 장치 설계 및 각종 산업·공작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2016.5.24. 부천신문)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對韓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5월~2016.6월)

□ 국내 기관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6년 7월8일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29>
- 『[일본경제포럼] 21세기 미래성장산업 일본농업과 일자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7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47>
- 『[일본경제포럼] 일본기업 취업하려면, 취업정보 및 준비가이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7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46>
- 『[일본경제포럼] 일본 자본시장의 진화와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7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45>
- 『[일본경제포럼] 일본 벤처산업 현황과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7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46&no=43744>
- 『[일본경제포럼] 한일간 산업 내 분업의 확대와 한일협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7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744&no=43743>
-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6월27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일본 기관

- 『일본의 경제협력정책과 중국의 원조정책』 아시아경제연구소, 2016년 7월23일
<http://www.ide.go.jp/Japanese/Publish/Download/PolicyBrief/Ajiken/pdf/069.pdf>
- 『중소기업의 TPP활용전략』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6년 7월12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6/naga20160711tpp.pdf>
- 『TPP 이후 아시아태평양 경제 질서의 신전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6년 7월9일
http://www2.jiia.or.jp/pdf/research/H27_Post-TPP/H27_Post-TPP_Trade_Architecture_fulltext.pdf
- 『한일관계는 개선, 중일관계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2016년 7월9일
http://www.canon-igs.org/column/160708_seguchi.pdf
- 『IoT사회에서 제조업의 방향성』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7월5일
<http://www.rieti.go.jp/jp/events/bbl/16062201.pdf>
- 『제품시장의 효율성과 전요소생산성 : 한일기업간 비교연구』 2016년 6월30일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DP136-FullE.pdf>
- 『혁신적인 산업의 융성이 세계의 무역투자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6년 6월29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442.pdf
- 『일본 인프라 수출추진전략의 현황과 과제』 일본종합연구소, 2016년 6월29일
<http://www.jri.co.jp/page.jsp?id=28621>
- 『영국의 EU탈퇴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종합연구소, 2016년 6월28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pdf/8883.pdf>
- 『일본의 인더스트리 4.0 동향』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6월28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iwamoto-koichi/09.html>

2. 주요 경제 일정

<7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9	· G20 무역장관회의(상하이)
10	· 참의원 선거
13	· LINE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15	· 아시아유럽회의(ASEM) 정상회담(몽골)
18	· H EU FTA 협상(벨기에)
23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중국)
25	· 6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8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
29	· 6월 통계 발표 : 유효구인배율(노동성),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31	· 도쿄도지사 선거

<8월 예정 >

일자	주요내용
11	· 새로운 공휴일 「산의 날」 시행
18	· 한일학생미래회의(후쿠오카)
30	·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도야마)
하순	·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조정 중(일본)